



◆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제18기 정기총회 개최
유닛로드 교육 확산 추진 등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회장 서병륜)은 지난 2월 27일 서울 마포 더부페에서 2014년도 제18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는 2013년도 주요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올해 유닛로드시스템 통칙 개정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교육에 힘을 계획이며 △한·중·일간 리더너블 물류용기 무관세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참여, △플라스틱 파렛트, 컨테이너 회수 의무율 13%의 달성과 ERP품목으로 전환 준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의 규모를 향상시키고, ISO/TC 122 WG13 회의를 통한 국제협력, 한·일 간 협력회의 개최, 자발적 협약 7차년도 운영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용마로지스 허중구 대표이사를 신임이사로, 공간찬널 이진명 대표를 승계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 제8회 한·중 파렛트 컨퍼런스 및 2013 국제 파렛트 회의 개최 물류용기 표준화 향상을 위하여



2013년 한·중 파렛트 국제 컨퍼런스 및 국제회의가 지난 11월 29일부터 약 이틀간에 걸쳐 중국 중경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KPCA)와 중국의 구매물류연합회(CFLP),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APSF)이 공동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로지스물서병륜 회장을 포함한 한국 대표단과 중국 관련 공직자, 유통물류 관계자 230여명이 참석했다.

한·중 파렛트 컨퍼런스는 한·중 간 파렛트 및 컨테이너의 표준화와 파렛트 공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한국과 중국의 통합 유통 및 물류시스템 기반을 구축해 물류 효율화와 국내기업의 물류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한국 대표단에서는 로지스물상해법인 신경용 대표가 '가치와 물류용기', LG히타치 이두원 상무가 'GLIS기반의 SCM 혁신사례', 박은규 APSF 전무이사 'APSF 파렛트 인증과 단체소개'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중국 대표단에게 아시아 일관 수송용 파렛트 표준화 및 서플라이 체인과 유닛로드 시스템 운영 경험, 모범사례를 전수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개발한 물류용기에 적절한 유닛로드시스템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물류표준화 관련 기술과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